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세상이다.
젊은이 세대를 위로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등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오릿동안 지켜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년 세대를 위로하는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제목만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 40대의 인생 보고서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어 버린 중년 세대에 보내는 격려를 담고 있다. 중년 이후의 삶, 이른바 '서드 에이지'에 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이의수 박사가 이 책의 저자다. <월드뷰>는 저자를 만나 책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중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담 · 정리: 김건주 편집장)

"책에 담긴 15개의 스토리는 사격의 현장에서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개인이 되었습시다. 저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힘들고 아팠다는 것을 느꼈으면 합니다."

마흔, 원하는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

'마흔은 중년을 상징하기 위해 저자가 특별히 선택한 단어다. 3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를 총칭하는, 즉 중년을 상징하는 단어가 '마흔'이다. '서드 에이지' 전문가에게 저자는 서드 에이지를 기준으로 '마흔'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람은 태어나 25세까지 화업과 적응의 시기를 갖습니다. 지식 습득이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25~40세까지는 획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0세 이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의 힘과 결단,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40세까지는 어찌다 보니 홀로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세 이후에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흔'은 인생 전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힘에 겹다.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를 듣고 부르며 성장해 온 세대이지만 노래는 노래로 남았고 현실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마흔'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책을 집필한 것이라고 한다.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마흔 이후 남자의 생존법이란 제목으로 문화일보에 3년 동안 칼럼을 연재한 것이 이 책을 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칼럼을 쓰는 내내 중년 세대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공감의 자리이길 원했습니다. 올해 초 저의 칼럼을 주목해왔던 출판사 관계자로부터 40대를 위하고 공감하는 책을 출간하자고 제안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공감하는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책에 담긴 15개의 스토리는 사격의 현장에 서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힘들고 아팠다는 것을 느꼈으면 합니다."



감기 걸린 미혼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감기 걸린 미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과 두통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열이 올라 온몸이 쭈시고 아프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 아프고 힘든 데 맡이다. 이처럼 어쨌든 견뎌야 하는 게 미혼 이후 남자들의 삶이다. 다행인 건 감기는 언젠가는 낫는다.

그런데 저자는 중년 남성이 걸려야 할 '감기'는 따로 있다고 했다. '갑작'과 '기쁨'의 감기가 그것이다. 갑작과 기쁨은 같은 현실도 다르게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정말 소중한 태도다. 지금 누리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기쁨은 절로 따라온다. 저자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함께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맞아, 맞아’라는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후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 본 기억이 까마득한 중년 남성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라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무조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수용과 긍정’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책 없이 다 괜찮을 거라는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진력을 기울였으니 괜찮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당신은 괜찮다. 무릎 꿇이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아주 괜찮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6



감기에 걸리면 기침과 두통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열이 올라 온몸이 쭈시고 아프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는다. 아프고 힘든 데 맡이다.

이처럼 어쨌든 견뎌야 하는 게 미혼 이후 남자들의

삶이다. 다행인 건 감기는 언젠가는 낫는다.

인생의 아픔에 대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저자는 이 책이 30대에게는 곧 현실이 될 중년에 대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짐을 살 때는 모텔하우스 여러 곳을 방문해 보고 상의하고 결정하고, 자동차를 살 때는 전시장을 이곳저곳 돌아보고 시승도 해보고 긴 토론 끝에 결정을 하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지 않는다. 인생의 아픔을 표현했다. 또한, 저자는 20대의 아픔은 40대의 아픔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청년의 아픔은 내일의 가능성이 될 수도 희망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혼의 아픔은 다르다.

“짐 아픈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두 해 겨울을 담요 한 장으로 견디고, 1,500 원이면 먹을 수 있던 식사도 부담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이 있기에 지금 아픈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갖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올해 초 이 날, 저의 스케줄을 살펴보았습니다.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가득 차 있는 일정.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파도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라 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플 수도 없는 인생이구나. 아파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년의 아픔과 미혼의 아픔은 다릅니다. 정말 무너져서, 상처를 치내서 아픈 겁니다. 이 아픔을 조절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세대는 계속해서 헌신을 요구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돌봄이 부족했습니다.”

중년에 대한 저자의 예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중(中)년은 중(重)년이라서 주저하다가 주저않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어느 세대보다 사명과 소명에 적극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된 것을 즐기기보다 앞으로의 일을 더 살피야 함을 이야기했다.